



## 도서정가제는 이제부터 시작, 지식의 젖줄 오프라인 서점 살려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창연 회장(도연문고 대표)은 요즘 심정이 착잡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서정가제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기 때문이다.

“서점은 지식의 젖줄 아닙니까. 문화상품은 공산품과 달리 과도한 할인 판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젖줄이 살아야 문화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아직 미흡해 문을 닫는 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벽두, 도서정가제 실시에 임박해 관련단체와 문화관광부 등에 연일 뛰어다니며 완전한 도서정가제 실시를 위해 애썼던 그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완전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다. 인터넷 서점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책은 10퍼센트 이내에서만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일리지 제공, 택배 발송료 면제 등을 감안하면 20퍼센트 이상의 할인판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서정가제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정착의지가 좀더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되고 불법 복제·복사 문제가 해결되면 출판및인쇄진흥법이 나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출판 및 인쇄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할인경쟁을 하기 전 1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오프라인 서점들이 2,30만 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독일과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법을 번역해 알리는 작업, 할인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는 책값 결정 운동, 출판계와의 보다 적극적인 토론과 협의의 활동 등을 펼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오프라인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점들이 유통에 깊숙이 뛰어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도서유통에는 서

점인들이 뛰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이 회장은 ‘범출판계 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발족되어 모든 문화유통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점인들도 분발해야 합니다. 밖에서 볼 수 있는 진열대에 잡지 위주의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서고의 디자인과 규격을 현대화해 서점을 하려는 사람들의 초기투자 비용을 줄이고 리모델링 작업도 수월하게 해야 합니다.”

이 회장의 이런 인식에는 자칫하면 서점이 1,000개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숨어 있다. 일부 대형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점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가는 책읽는 사회로의 진입이 영영 불가능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임을 포함, 서점연합회장으로서 4년 7개월 동안 일해 오면서 요즘처럼 답답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권이 확보되고 교육제도가 정비되면 자연스럽게 독자가 늘어납니다. 책을 안 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책을 안보냐고 야단치는 것이말로 모순이지요.”

24년 동안 도원문고를 운영해 온 이 회장은 협회를 이끄는 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하는 적이 거의 없으며 그래도 잠들기 전 두 시간 정도는 책을 본다고 말했다.

“아트박스처럼 꾸민 서점을 경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서점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갖고 싶은 공간으로 꾸미면 서점 주인도 독자도 행복할 것 아닙니까.”

이 회장은 요즘 출판계에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완벽한 도서정가제 정착과 서점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두문불출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

취재 임동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